

작품 내용

제 목	현대판 금도끼 은도끼
내 용	어느 날 한 나그네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난관에 봉착했다. 글자만 있는 흰 화면은 심심할 테니까 보기 좋게 채워야지. “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기” 무시하곤 원하는 사진 몽땅 고르다가 모니터에 산신령이 나와 하는 말: — 이 창작물이 네 것이냐 — 사람마다 도끼를 만들어내면 저작권이 동시에 발생한단다 — 도끼를 던지면,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생겨나는 게지 — 함부로 가져다 써버리면,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겠지? 나그네의 머릿속에 종이 울렸다. 잃어버린 양심을 찾은 기분이었다. — 이 도끼를 피가도 되는지 허락 말고 오려무나 — 그전까진 마우스 드래그 금지란다